

‘청소년 갱단’ 소문에…학생·학부모 ‘불안’

광주 북구 ‘중학생들 집단폭행 의혹’ SNS 확산 경찰·교육청 진위 확인…신용동 일대 순찰 강화

광주시 북구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갱단(?)’이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 폭력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청과 경찰 간 관련 내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이 다른 학생들로의 피해 확산을 막기보다는 해당 사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SNS상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 요청하는 등 쉬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칫 등하굣길이나 학원 이동 시 피해를 입을까 우려해 학원 종로까지 머무르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일 광주북부경찰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학원가 등에서 중학생들이 무리를 이뤄 집단 폭행을 일삼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기관별 진위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신용동에서 중학생 10여 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대상을 몰래했다’는 글을 토대로 주변 경찰서에 피해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 등이 첨단2지구 근린공원과 신용동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지구대를 통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경찰은 SNS 글에서 지목된 지난 23일 접수된 집단 폭행 사건은 없다는 입장이다. 북부경찰은 그러나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간곡지구대를 통해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광주청에도 기동순찰대 배치를 요청했다.

학생들 대상 폭력 행위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도 주목하고 있다.

교육청은 SNS상 게시물과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밀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학부모들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이 비슷한 학원가를 다니는 학생·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자녀 지키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맘카페에서는 “카페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아이를 학원가 도로에만 내려주고 갈 때가 많은데 학원입구까지 데려다줘야겠다”, “요즘 중학생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냐. 보복할까봐 무섭다”, “아이 픽업이 불가능한 워킹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는 걱정스러운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동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아침에 아내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걱정이 돼서 아이들에게 태권도 학원 끝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라고 연락했다”고 했다. 또 “지난 주말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형들이 모여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금방 들어왔다. 오늘 게시글을 보니 불안감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사랑의 온도탑에 ‘온기’를

광주사랑의열매와 전남사랑의열매는 1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집중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사랑의열매 캠페인 출범식에는 구제길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허영호 전남사랑의열매 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명이 참석했다.올해 나눔 목표액은 광주지역

51억2000만원, 전남지역 110억 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성금이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상승하며, 목표액을 전액 달성하면 100도를 가리키게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6년간 장애인 착취 ‘나쁜 이웃들’ 쇠고랑

신안 염전주 A씨 등. 노동·임금 착취·횡령 혐의로 재판 넘겨져

16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고 겨우 찾아간 요양병원에서도 통장 돈을 빼앗는 등 나쁜 이웃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표지정은 신안군의 염전주 A(59)씨를 준수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가로챘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임금을 통장에 넣어 줘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임금 통장을 임의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피해자는 장애인에 유리한 자기 통장에서 돈을 입·출금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간헐적으로 돈을 입금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친동생 B(57)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씨 등을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등 준수사기,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방을 임대해 준 것처럼 꾸미

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피해자는 A씨의 집에서 거주 중인 만큼 방 임대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B씨는 빼돌린 현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곳에서도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식으로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인 D(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1000여만원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피해 실태는 지난 2023년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2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담양 ‘달빛무월마을’ 선정

담양 대덕면 달빛무월마을이 12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은은한 달빛이 어루만지는 마을’이란 뜻을 담고 있는 달빛무월마을은 전통 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10여채의 한옥 민박이 조성돼 있으며 돌담길과 대나무 숲, 달맞이 산책길 등 산책로를 갖추고 있다.

또 윤동주 시집 필사하기, 대통밥·한과·풀잎염색 예교백 만들기, 고구마·단감 수확 체험 등 다양한 마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갯 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에 메타세쿼이아길과 죽녹원, 관방제림, 담양호 등도 가깝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 달빛무월마을은 전국 체험마을 으뜸촌 선정, 경관 최우수 마을 선정 등 전국 마을 콘테스트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체험마을”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학원생 사망’ 갑질 교수들 검찰 송치

연구비 부정 사용·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이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 혐의로 전남대 교수 2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1일 오전 전남대 대학원생 A(24)씨에게 ‘갑질’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지도교수 B씨와 40대 계약직 연구교수 C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사기, 강요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A씨에게 사적 심부름을 비롯해 과중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연구비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A씨에게 이를 관리하게 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돼야 할 학생 인건

비 등을 빼돌려 본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연구과제 선정 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받은 후, 이를 일명 ‘실비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받는 등 300만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연구비와 관련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100만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논문 작성에 기여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허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가 실제 자료를 제공했던 실무자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B씨 등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갑질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심부름 지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